

제 98 회

4月 11日

- ... 본회가 주최한 제98 ...○
- ... 회 발명교실이 지난 ...○
- ... 4월 11일 발명장려관 ...○
- ... 연구실에서 개최됐다. ...○
- ... 매월 둘째 토요일 오 ...○
- ... 후 1시 30분에 개최 ...○
- ... 되는 발명교실은 이 ...○
- ... 달에도 1백여 명이 ...○
- ... 참석하여 성황을 이 ...○
- ... 루었다. 이날 발명교 ...○
- ... 실에서는 평화프라스 ...○



자동공기유입장치 발명가 평화프라스틱공업(주) 이종호 사장

1976년에 평화프라스틱 공업(주)를 창업한 이종호 사장은 그동안 '87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에서 금상, 서독국제발명품전시회 금상 등 외국전시회에서만 7번에 걸친 수상경력을 갖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중앙경제신문이 후원하고 특허청이 주최하는 특허기술상을 수상하고 4월에는 3방향 파이프 연결구조 제네바 국제 발명 신기술 및 신제품 전시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75년 당시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던 이종호 사장은 자신

의 집 천정에서 물이 새는 등의 하자가 생기자 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지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 의문은 결국 순탄한 직장생활을 뿌리치고 발명계로 뛰어드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사장은 먼저 PVC 파이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파이프 자체에는 문제가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새로 건물을 짓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기는 하자 중에서 가장 빈번한 하자가 누수현상, 즉 파이프에서 물이 새는 현상인데 이는 파이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음관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래의 파이프 연결방식은 파이프의 연결부위를 사포로 닦아내고 PVC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음관과 접합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문인력에 의해서만이 가능했으며 시공 후 누수의 가능성이 높아 비경제적이었다.

이러한 단점을 파악한 이사장은 간편한 방식으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시공할 수 있으며 안전한 이음관을 만들게 되었다.

원터치 결합 이음관.

이 제품은 접착제가 필요없고 파이프와 파이프를 이음관에 연결시킨후 이음관 자체에 있는 캡을 조이면 시공이 끝

發明教室

成功事例 등 發表

- ... 틱공업(주) 이종호 ...○
- ... 사장의 성공사례 발 ...○
- ... 표에 이어 金寬衡 본 ...○
- ... 회 상근 이사의 「발 ...○
- ... 명의 발상기법과 사 ...○
- ... 업」 「산업재산권제 ...○
- ... 도」에 대한 강의 및 ...○
- ... 토론이 있었다. 발명 ...○
- ... 가의 성공사례를 간 ...○
- ... 추려 소개한다. ...○
- ... <柳泰洙記> ...○



나게 된다.

이 원터치 결합 이음관은 또한 자체에 들어있는 고무링에 윤활제가 발라져 있어서 파이프에 별도의 윤활제를 바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듯 획기적인 발명품을 제작한 이사장은 80년대 초부터 직무발명제도 등 각종 업무개선 및 제품개발 구조를 운용하며 더 나은 발명품의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개발된 또다른 제품이 있는데 자동공기유입장치다 바로 그것.

에어밸브로도 불리우는 이 자동공기유입장치는 배수관을 옥상 또는 건물 외부로 연장하여 공기를 공급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건물 내부에 설치하여도 기능을 다할 수 있고 악취가 건물 주변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건물을 예로 들면 우선 각 층에서 버리는 하수 또는 폐수를 중간에 큰 배수관으로 모으고 이것을 다시 지하의 정화조로 들어가도록 설계하는 것이 기존의 방식인데 이때 배수관이 진공상태가 되어 배수 흐름을 막거나 역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관을 길게 연장하여 옥상이나 건물 외부로 돌출하도록 만들었다.

이 방식은 건물의 외관을 해칠 수밖에 없고 심한 악취가 하수구를 통해 일반 가정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어 왔다.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하여 자체개발을 이루던 이사장은 다시 이 에어밸브를 통해 획기적인 시공법을 창안하게 되었다.

건물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 이 에어밸브는 고무방취판이 들어있는 원통형 박스를 통해

악취방지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배수시에는 배수관 내외부의 압력차이가 발생하여 고무방취판이 떠오르게 되고 이를 통해 공기가 공급되어 원할한 배수가 이루어지며 배수가 끝나면 고무 방취판이 자체 무게로 가라앉아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여 악취의 흐름을 방지하게 되어 있다.

이렇듯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효과를 내는 에어밸브는 분당 신도시에 쓰이기 시작하여 그 성능을 인정받았다.

평화프라스틱공업(주)를 KS 11건, 일본공업규격(JIS) 및 Q마크, 각종 기술특허 200여건을 보유한 중견기업체로 성장시킨 이사장은 제품을 만들면 사겠다고 한 사람도 막상 제품이 만들어지면 거절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시장분석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